

보도시점

2024. 6. 18.(화) 09:00

배포

2024. 6. 18.(화) 09:00

농어촌공사, 농촌지역의 활력 되찾아

-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기관들 힘 모아 다채로운 '농촌재능나눔활동' 펼친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순창군 인계면 체육관에서 기관별 협력으로 더 다채로워진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기관, 단체, 대학교, 대학생 봉사 동아리 등을 선발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3개 단체와 4개 대학, 30개의 대학생 봉사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특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3일간의 '농촌재능나눔활동'에는 재능나눔활동 단체인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의 근육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돌보기 제작, 의치 관리, 만성질환 교육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이 진행되는 물론, 전북농협, 전북문화관광재단, 순창군 가족센터,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등 여러 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활동 첫 시작일인 19일에는 전북농협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청춘 버스로 피부, 헤어 등 미용 관리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21일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준비한 청년예술팀의 문화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의 재능나눔활동과 순창군 가족센터,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간식 나눔은 활동기간 동안 진행된다.

김영배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기관 간 협력으로 전개하는 이번 활동은 농촌주민에게 더 많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첫발을 디딘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어촌자원개발원	책임자	부 장	양희경 (031-8084-9561)
	공동체지원부	담당자	과 장	김성연 (031-8084-9565)